

# 생명을 살리는 사명감으로 하나 된 한미 연합 의무종합훈련

국군의무학교에서는 지난 5월 28일부터 사흘간 한미 의무요원이 함께한 연합의무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한마음으로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함께 땀을 흘렸다.



박 상 하 육군소령  
국군의무학교

이번 연합 의무종합훈련은 2024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훈련으로 한국군 교육생 77명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의무요원 10명이 참가했다. 훈련의 중점은 실제 전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환자처치 및 후송 능력 향상, 항공의무후송 요청 및 헬기 활용 후송 절차 숙달, 연합 의무지원간 제한사항 제감, 극복을 통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일 차는 행동화 과제 절차 숙달을 중점으로 환자 후송법 숙달, 현장 응급처치 및 한미 응급처치 물자 비교, 활용 방법 공유와 화학오염 상황하 피복 제거 및 피부 제염 절차를 밟았다. 한미 양국의 전투현장 응급처치 방법 공유를 통해 의무대응 절차를 상호 이해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2일 차는 팀별 교육생들이 사전에

선정한 직책에 따라 사단 의무대대 지휘통제실을 구성해 전면전 상황 아래 부여되는 MSEL(Master Scenario Events List)에 대응했다.

특히 다양한 환자 발생에 따른 환자 분류, 처치, 후송을 위한 연합이동진료반·대량전상자처치반 운용을 통해 복잡한 전장환경 속에 발생하는 환자를 한미 의무요원이 원팀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연합의무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의무후송항공대의 메디온을 활용한 항공의무후송 절차 교육과 야간 화학오염 상황에서 대량전상자처치반 훈련을 통해 약조건에서도 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후송할 수 있는 실전 대응 능력을 길렀다.

3일 차는 사후강평을 통해 과제별 성과분석과 소감 발표 및 후속 조치 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후반기에는 양국의 의무후송헬기를 동시 비교, 항공의무후송 훈련 적용 등 발전된 훈련을 계획·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성과를 확인했다. 첫째, 한미 의무요원이 동일한 작전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연합의무작전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과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둘째, 실전과 같은 전장환경에서 여러 환자 유형과 전술 상황을 반복 숙달함으로써 의무요원의 현장 판단력과 전문성을 끌어올렸다. 셋째, 언어·물자·처치 절차 등 체계는 다르지만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 아래 양국 의무요원이 하나의 팀으로 임무를 완수하며 실질적인 연합의 의미를 구현했다.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연합의무종합훈련을 발전시켜 위기 속에서도 함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된 연합의 무지원체계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2025 화랑훈련을 통해 본 지역방위의 중요성



한 상 재 상사  
육군51보병사단 비룡여단

“인접 부대 내 테러 상황 발생! 기동중대 1개 소대 중자산으로 긴급출동!”

항공유가 타는 내음을 맡으며 수리운으로 급하게 뛰어든 중대원들과 함께 날아오른 평택의 하늘은 짙고 더할 나위 없이 맑았다. 완전군장과 함께 로프 하나에 의지한 채 동승한 중대원들은 땀에만 젖은 게 아니었을 것이다. 묘한 긴장감, 고양감에도 함께 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화랑훈련 3일 차로 접어들고 있었다.

우리가 뛰어든 화랑훈련은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적의 침투 또는 국지도발과 같은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이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화랑훈련이 군 생활 중 8차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새롭고 어렵게 느껴진다.

대학생 시절 군사학 과목에서 배운 클라우드비츠의 전쟁론에 쓰였던 ‘전장환경의 불확실성’이 매년 떠오르는 훈련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다변화·고도화하는 적의 도발 양상이 훈련마다 가미되고 있어서인 듯 하며, 이에 따라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철저히 준비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가시화된 현장 실무들은 간부로서 다양한 작전환경을 고려하고 주도면밀한 계획, 전술적 행동이 수반된 예행연습이 지속해서 요구된다는 것을 통감했다. 그리고 우리 부대가 위치한 지역 특성상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무차별 테러, 즉 소프트타겟의 방호작전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훈련이었다.

한편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전쟁,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을 통해 다양한 전기전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직접적인 병력 파견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전개되는 세계 속 전장에서 전천후 다양한 전술적·전기적 대응 방법은 위기의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군과 현재 땀 흘리며 화랑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부대에 필수 불가결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내가 속한 기동중대는 여단의 전·평시 임무의 중요한 주축으로 지휘관이 사용할 수 있는 최정예이자 전장의 게임체인저 제대로서 다양한 임무와 환경에 적응하고, 지상전의 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파부침주(破釜沈舟) 정신으로 전장을 지배하라’는 나의 군 생활 다짐처럼 우리 기동중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지역방위사단의 기동중대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 “처음의 훈련은 고통이 아닌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곧 부사관 후보생들이 부사관학교 입영훈련을 시작합니다. 11기는 첫 훈련이고, 10기는 2년 차 훈련에 나섭니다. 초급간부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이 시점, 입영훈련은 분명 그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 태 영 교관  
전주기전대 부사관학군단

교관으로서 저는 이 훈련을 함께 준비하며 언제나 군 생활의 첫 장면을 떠올립니다. 24년 전 육군3사관학교 입교 당시 낯선 환경, 날카로운 구령 속에서 긴장과 두려움이 교차했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떠올리기조차 싫었던 그 시간은 결국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었고,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강력한 시작이었습니다.

후보생들도 지금 마찬가지로입니다. 훈련은 고통입니다. 단순히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익숙한 자기 모습과 이별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신적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로서, 저는 이들이 그 도전 앞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입영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의 시

간이 아닙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과 명령의 의미를 배우는 시기며, 훈련을 통해 이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를 처음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과업 하나가 자신과 타인의 생존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기에 훈련의 모든 순간은 실제 상황을 살아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교관의 역할은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사관은 명령을 따르는 존재를 넘어 병사들의 멘토이자 전투력의 첨병입니다. 저는 훈련마다 이들에게 ‘왜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이유를 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은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외

형이 아닌 내면의 전환이 이뤄질 때 비로소 진짜 부사관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훈련은 고되고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입영훈련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의지의 문제며, 강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을 기르는 여정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발짝만 더 버티면 완전히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여름, 저는 또다시 새로운 후보생들과 마주할 것입니다. 이들의 눈빛 속에는 긴장도, 기대도, 두려움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변화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응원하고, 책임지고,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후 이들이 더 이상 ‘후보생’이 아니라 ‘진짜 부사관’이 돼 당당히 거수경례하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분량: 1600자 이내 (공백 포함)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일보 홈페이지 내 ‘병영의 창 기고하기’ 배너 통해 양식 확인 후 이메일로 제출(현역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사전검토 필수). 증명사진(최소 1MB 크기)과 함께 채택 시 기프티콘 수령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포함. 글의 분량이 최대 1600자를 넘지 않도록 유의.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mletter@mnd.mil  
기타: ‘병영의 창’ 등에 글이 게재된 분에게는 매월 말 응모한 휴대전화 기반 카키오토크로 차인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 및 기프티콘 분실 시 재발송 불가합니다.  
문의: (군)947-3713, (일반)02-2079-3713